

周時經 著 油印 「소리갈」에 대하여

金 敏 洙*

I. 緒 論

한헌생 周時經(1874~1914)의 마지막 著書는 순한글로 지은 「말의 소리」이며, 이 책은 그가 작고하기 석 달 14일 전인 1914년 4월 13일에 京城 新文館에서 親筆石版으로 간행되었다.

당시 漢字語를 빠짐없이 순우리말로 고쳐 쓰기까지에는 많은 노력과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形成過程을 보여 주는 소중한 文獻으로서의 다음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를 筆寫 「말의 소리」 檢閱本이다. 이것은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의 出版許可를 받은 그 檢閱濟 原文으로서 周時經 藏書를 인수한 六堂(崔南善) 文庫에 보존되어 있다. 29매의 親筆本이나, 앞 27매는 片面美濃野紙에 붓글씨로 썼으며, 뒤 2매는 硃紙에 石版으로 인쇄하였으며, 製冊은 8切兩折의 지노(紙繩) 假綴이다. 간행된 그의 「말의 소리」는 全文에 形態分析을 표시한 것이 큰 특징이나, 이 檢閱本의 墨書部分만은 그것이 없다.¹⁾

다만, 이 檢閱本이 간행된 石版本에 선행하는 草稿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出版許可나 執筆年代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색다른 紀年을 끝에 기록하고 있어서,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그 執筆年代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1) 말의 소리의 곳에 두는 말…르ㄷ口〇 한겨울날

* 高麗大 教授(國語學專攻)

- 1) 그 石版部分에는 이미 出版許可申請本부터 形態分析이 표시되어 있다. 줄거, 「周時經 研究」(1977. 8. 서울, 塔出版社) 資料 및 「歷代韓國文法大系」 第Ⅱ部 第4冊(1977. 12. 서울, 塔出版社), Ⅱ 13 참조.

- (2) 세난의 틀…르디로스 한겨울날
 (3) 우리글 가로 쓰는 익입…르디로스 한겨울날

등이 그것이다. 이 숫자는 책의 면수 표시에 따르면,

- (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ㆿ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르디로스=4358(단기 4245, 서기 1912), 12월
 (3) 르디로스=4359(단기 4246, 서기 1913), 12월

일 것으로 짐작될 뿐, 과연 무슨 紀年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말의 소리」本文의 탈고는 1912년 12월이거나 1913년 1월, 그 夾入 이하 2매는 1913년 12월이거나 1914년 1월일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는 周時經, “한나라말,” 「普中親睦會報」 제 1 호(1910. 6. 10), 86-92면의 글이다. 이 잡지는 漢城中部磚洞 普成中學校內 普中親睦會에서 간행하였으며, 그는 1910년 1월부터 普成中學校 講師였다. 그러면, 이것은 1909(隆熙 3)년 10월에 탈고하여 1910년 4월에 간행한 그의 「國語文法」에 뒤이어 그 「國文의 소리」 전반을 다시 고쳐 쓴 글이라고 짐작된다.²⁾ 그의 「國語文典音學」과 「國語文法」을 비교하면, 이미 「國語文法」에서 제 1 단계의 우리말化 작업이 엿보이므로, 이 “한나라말”은 그 제 2 단계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資料로서 周時經 著 油印本 「소리갈」이 발견되어 이 문제에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1977년 7월 22일 저녁 新聞會館에서 열린 李崇寧 선생님 古稀宴에서 嶺南大學校 교수 姜藹樹 박사를 통하여 그 中央圖書館에 소장된 이 책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歷代韓國文法大系」³⁾의 편집을 계속하고 있는 관계로, 이 방면의 관심은 유달리 컸었다. 그 후 이에 대한 個人發表가 있었으나,⁴⁾ 필자는 부득이 경청하지 못하였고, 1978년 2월 25일 姜박사에게서 그 複寫本을 받았다.

이 책은 8切兩折 크기의 本文 5매와 附錄 1매뿐이며, 本文 끝에는 ‘光武

2) 이 글은 李基文 編, 「周時經全集」(1976. 12. 서울, 亞細亞文化社), 下에 수록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그 原文 및 解說 참조.

3) 金敏洙, 河東鎭, 高永根 編 1977. 12-. 서울, 塔出版社 發行.

4) 1977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水原 말씀의 집에서 열린 國語學會 제 4 회 겨울 共同研究會에서 個人發表로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國語學」 6 (1978. 6), 彙報 참조. 崔明玉, 周時經 著 「소리갈」에 대하여

十年八月三十一日 周時經著'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첫인상은 아무래도 1906(光武 10)년의 저술이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著述로서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고, 열거된 參考書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책은 과연 언제 저술되었겠는가? 특히 그 著述年代가 중요시되는 까닭은 그 「말의 소리」의 形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周時經의 學說發展史가 뒤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소리갈」의 이러한 疑惑에 대하여 규명해 보고, 또한 이 책이 「말의 소리」의 形成 및 周時經의 學說發展史에서 차지할 위치를 정립해 보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로 이와 관련되는 일련의 文獻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되, 그의 學說發展史에 비추어 가능한 검토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Ⅱ. 「소리갈」에 대한 檢討

앞에서 문제의 油印「소리갈」이 기록된 著述年代보다 뒤에 되었으리라는 느낌을 말하였지만, 그 엄연한 記錄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論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油印物이 著者의 自筆이란 점을 생각하면, 문제는 단순하게 처리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 그 參考書의 發見時期

우선 「소리갈」의 附錄에 열거된 參考書를 보면, 그가 1907년 이후에 처음 보았다고 스스로 언명한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그 書目에 번호에 붙여서 차례로 이 점을 살피기로 한다. (다음 引用文의 띄어쓰기와 괄호 속은 필자)

(1) 訓民正音…‘훈민정음 보기를 편하더니 을스년(1905. 光武 9) 여름에 디교장(池錫永)이 문헌비고 樂考에 실린 훈민정음을 찾아 내게 보이니……’ 주시경, 「대한국어문법」(1906. 6), 32장.

(2) 龍飛御天歌…‘隆熙 元年(1907) 十二月日에 池松村 錫永氏를 訪聘호즉 同氏가 龍飛御天歌를 求來하여 余에게 示하거늘 余가 此歌를 閱覽하다가……’ 周時經, 「國語文典音學」(1908. 11), 58면.

(3) (月印千江之曲 釋譜)…周時經, 「朝鮮語文法」(1911. 12), 3면에 ‘釋譜月印千江之曲에 ○을 終聲으로 用함이다 有若無하며……’란 것이 최초의 언급이므로 1911(明治 44)년에 처음 본 듯. 이 책란 제목에 괄호가 있다.

(4) 訓蒙字會…國文研究所 報告書에 첨부된 1909(隆熙 3)년 3월 周時經의 「國文研究」에서는 직접 인용하였으나, 이전에는 「正音通釋」을 통하여 간접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訓蒙字會再刊例,” 「訓蒙字會」(1913. 11. 京城, 朝鮮光文會), 권말에서 ‘本書를 再刊하는 原板은 일즉이 余가 此를 求하여 學部國文研究所의 委員으로 잇을 時에 某某 同察와 서로 보던 者……’라 하였으니,¹⁵⁾ 그 시기는 1908년 말 이후일 것이다.

(5) 東國正韻…國文研究所 報告書에 첨부된 1909(隆熙 3)년 3월 周時經의 「國文研究」에 그 書名이 처음 등장하기는 하나, 직접 인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지는 못한 듯.

(6) 四聲通攷…위 「東國正韻」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四聲通解」에 수록된 “四聲通攷凡例”를 인용하고 있다.

(7) 四聲通解…國文研究所 報告書에 첨부된 1909(隆熙 3)년 3월 周時經의 「國文研究」에 비로소 인용되었으니, 전항과 함께 1908년말 이후에 처음으로 본 듯.

(8) 三韻聲彙…周時經, 「國語文典音學」(1908. 11), 46면 이하에 처음으로 인용된 것으로 보아 1908년 이후에 비로소 본 듯.

(9) 正音通釋…‘김구체 갑오(1894. 高宗 31) 정월에 비로소 華東正音通釋을 얻어 본즉……’ 류시경, 「대한국어문법」(1906. 6), 29장.

(10) 奎章全韻…1908(隆熙 2)년 「國語文典音學」에 처음 인용된 것으로 알았으나, 周時經의 「國文研究案」(1907. 11. 30)에 ‘全韻을 불지라도 誦事司 等字는 다 스로 달았는데……’라 되어 있어 이미 1907년에 본 듯.

(11) 東音解…周時經, 「國語文法」(1910. 4), 27면에 처음 인용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그 책을 탈고한 1909(隆熙 3)년 10월경에는 이미 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 (1)-(9)를 제외하고는 다 문제의 「소리갈」을 저술하였다는 1906년 8월에 보지 못한 文獻들이다. 줄잡아 (2) 「龍飛御天歌」를 1907년 12월에, (4) 「訓蒙字會」를 1908년 경에 처음 보았다고 스스로 기록한 사실만 보아도 그 「소리갈」이 1906년의 著述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면, 그 參考書를 열거할 수 있는 시기는 (3) 「月印千江之曲 釋譜」를 처음 인용한 1911년 12월 전후여야 할 것이며, 그의 「國語文法」에서는 이 책을 아직 참조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저히 그 1910년 4월을 소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2. 「소리갈」의 內容比較

다음은 문제의 「소리갈」이 1906년의 著述로서는 너무 정돈되어 있는 점을

5) 그의 履歷書에 ‘明治四十年(隆熙 元, 1907) 七月 十二日 前韓國 學部 奏任委員을 被任하여 四十三年(隆熙 4, 1910) 八月에 解任됨’이라 하였다.

캐 보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의 소리」가 형성되기 위한 우리말化 過程에 비추어 볼 때, 이 「소리갈」은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1910년 6월의 “한나라말”보다도 1914년 4월의 「말의 소리」에 더 가까운 內容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소리갈」은 1911년부터 1913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가능성을 뒷받침할 고증이 문제된다. 이것은 內容上의 의문이므로, 관련된 그 셋을 면밀히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면, 편의상 “한나라말”은 (한), 「소리갈」은 (갈), 「말의 소리」는 (말)이란 略稱으로 표시하여 필요한 부분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소리의 性質

(한) 87-8면 한나라글의소리	(갈) 1 전면 말 ^하 소리갈	(말) 7 말의소리
소리의남 은의음죽이는것이라 몬은우리나라말로漢字物 같은이름이니東言解에 난 것이라 이는固液氣세가지물다이 름이나라	소리의남 은의음죽임이니라 몬은 漢字로物과한가지의뜻이 되는말이니라	소리의남 몬의음죽임이니라
소리의퍼짐 氣의결이라 결은물결이라나무결이라 하는결이라	소리의퍼짐 노의결이니라 노는브리 튼말로에아나漢字로氣와 한가지의뜻이되는말이니 바람과사람이쉬는숨은다 노의음죽임이니라브리튼 Britain 에아 air	소리의퍼어짐 노의결이니라
소리의빗 소리가나는몬의姓을따르 어서로다른바니라 (본)사람과사람이서로다 름과쇠와나무가서로다름 과같은것들이라	소리의빗 그소리가나는몬의바탕을 따르어서로다름이니라	소리의빗 그소리가나는몬의바탕을 따르어서로다름이니라

6) 큰 제목이 ‘말’이며, 版心도 다 ‘말’로 되어 있다. 이 ‘말’은 國語의 뜻이며, 그 아래에 소리갈, 씨난갈, 짬듬갈 등이 자리잡는 식의 學的 構成이었다고 해석된다.

이 比較에서는 (갈)의 내용이 점으로 표시한 ‘氣’와 ‘노’나 ‘性’과 ‘바탕’ 등의 예로 보아 (한)보다 (말)에 더 가깝고, ‘몬’이나 ‘노’의 註釋을 보면 (한)과 (말)의 중간이라고 믿어진다.

(2) 母音과 子音

(한) 88-9면	(갈 1) 전면	(말) 7-1
<p>웃음소리 스스로나는소리롤이름이 니브리튼말로바벨(vowel) 이라함이오淸國과日本에 서이를삭이어母音이라하 는것이라 (본)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ㆁ ㆁ ㆁ ㆁ 같은것들이 라</p>	<p>웃음소리 스스로나는소리롤이름이 니라 브리튼말로 Vowel ㅂ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같은것들이니라</p>	<p>홀소리 홀로나는소리롤이름이니 라 (보기) ㅂ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위들이니라</p>
<p>불음소리 웃음소리와더불어나는소 리롤이름이니브리튼말로 칸슨앤(consonant)이라 함이오淸國과日本에서이 를삭이어子音이라하는것 이라 (본)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같은것 이라 (본)은본보기라함이니漢 字例와한뜻으로씀이라</p>	<p>불음소리 웃음소리에불어야나는소 리롤이름이니라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트포항니라 ㅇ 소리는없는것이니라</p>	<p>닷소리 홀소리에닷아야나는소리 롤이름이니라 (보기) ㄱ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지항카트포차기리의다위 들이니라</p>
<p>웃음소리와불음소리를풀 어한본으로(가)를가지고 말하면나는기없어도스 스로나고기은그소리가지 오되홀로나지못하고나에 불은뒤에야들어나니라 말의소리를알라면몬저웃 음소리와불음소리의다름 을밝히알아야되나니라</p>	<p>웃음소리와불음소리를가 르어풀라고한보기를가들 가지고말하면나는기없 어도스스로나고기은그소 리가잇오되홀로나지못하 고나에불은뒤에야들어나 니라</p>	<p>홀소리와닷소리를가르 는보기 가들가지고이르면나는기 없어도홀로나고기은그 소리가잇오되홀로나지못 하고나에닷은뒤에야들어 나나니그남아도다이라하 니라</p>

이 比較에서는 (갈)의 내용이 점으로 표시한 ‘웃음’과 ‘홀’ 및 ‘불음’과

‘닷’ 등의 예로 보아 (말)보다 (한)에 더 가깝고, ‘본’과 ‘보기’ 등의 예나 ‘ㅎ’의 인식으로 보면 (말)에 더 가깝다.”

(3) 單音과 複音

(한) 89-91면	(갈) 1 후면	(말) 1-2
<p>웃듬소리의 훗과겹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훗소리는 돌로 돌더되는소리 로난홀수없는것올이름 이니우리글의웃듬소리가 여섯뿐이로되말을적지못 할것이없으니이는우리나 라말의웃듬소리가깨끗하 고두렷하며또그소리의훗 음을잘찾아내어글을만들 으신까닭이라</p>	<p>웃듬소리의 훗과거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훗소리</p>	<p>홀소리와 닷소리의 훗과거듬 홀소리의 뜻 훗소리는 홀소리든지 닷 소리의 돌로 난홀수가 업는 것 올이니라 거듬소리의 뜻 거듬소리는 홀소리든지 닷 소리의 돌로 돌이더되는 소 리로 난홀수가 잇는 것 올이 니라</p>
<p>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거새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와 같은 것은 다 겹소 리라 겹소리는 닷소 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가 겹치어 된 것이니라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겹 이요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겹이요... (중략) 겹이니 그 남아는 다 이리 하니라 한 본으로 들어 말하면 나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가 겹치어 나는 소리를 적음인 때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를 왼쪽에 쓰고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를 오른쪽에 쓴은 그 소리 가 겹치어 날 때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는 왼쪽 에서 나고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는... (하략)</p>	<p>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거새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와 같은 것들은 다 거듬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거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거듬... (중략) 그 남아는 다 이리 하니라</p>	<p>홀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니라 거듬 홀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거새의 다 위들이니라 (홀이)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거듬... (하략) (잡이)... (하략)</p>
<p>볼음소리의 훗과겹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훗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이 셋은 이 다음에 따로 말하리라.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과 같은 것들 은 다 겹소리라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겹소리 ... (하략)</p>	<p>볼음소리의 훗과거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훗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과 같은 것들 은 다 거듬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거듬 ... (중략) 그 남아는 다 이리 하 니라</p>	<p>훗닷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람 거듬 닷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다 위들이 니라 (홀이)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ㅡ ㅚ 의 거듬... (하략)</p>

이 比較에서는 (갈)의 내용이 점으로 표시한 ‘점’과 ‘거듭’의 예 및 홑소리의 ‘ㅇ’ 등으로 보아 (한)보다 (말)에 더 가깝고, 거듭소리의 예로 보아서 (갈)이 (한)과 (말)의 사이에 놓여야 옳을 것이다.⁸⁾

이상 (한)과 (갈) 및 (말) 삼자의 內容을 비교한 결과, (갈)이 시간적으로 한결같이 (한)과 말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1914년 4월의 「말의 소리」에 선행하되, 1910년 6월의 “한나라말”보다 뒤에 이루어진 內容이라는 뜻이다. 이 사실은 앞에서 그 參考書의 發見時期를 규명해 본 결과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곧, 「소리갈」은 1911년 12월 전후에 되었고, 빨라도 1910년 4월을 소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고증되었기 때문이다.

3. 「소리갈」의 著述年代

周時經의 自筆油印 「소리갈」이 그의 기록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규명해 본 바와 같이 그보다 약 6년 뒤의 著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歸結에 따라 우선 해명할 것은 그 精確한 著述時期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되는 周時經의 歷代著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周時經의 歷代著述年表

- (1) 1897(光武 1). 봄 「국문식」 筆寫本(不傳)
- (2) 1898(光武 2). 12. 31. 「國語文法」 草稿(不傳)
- (3) 1905(光武 9). 6월경 「國文文法」 俞萬兼筆記
- (4) 1906(光武 10). 6. 「대한국어문법」(「國文講義」) 自筆油印
- (5) 1906(光武 10). 8. 25. “국문” 「가녕잡지」에 發表
- △() 1906(光武 10). 8. 31. 「소리갈」 自筆油印
- (6) 1907(隆熙 元). 11. 30~1908. 12. 16. 國文研究所 「國文研究案」 油印
- (7) 1907(隆熙 元). 11. 30. 「월남망국스」 出版
- (8) 1908(隆熙 2). 10. 1. 「漢字初習」 撰行(不傳)

7) “한나라말”까지 쓰던 이음(ㅇ)을 「朝鮮語文法」 이후 ‘ㅇ’으로 바꾸고, 「소리갈」과 「말의 소리」에서는 다 그 받침을 일부러 ‘ㅇ’字形으로 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은 周時經, “訓蒙字會再刊例.” 「訓蒙字會」(1913. 11. 朝鮮光文會), 권말 참조.

8) 그 밖에 「소리갈」 5 전면 ‘많이, 많음’ 및 5 후면 ‘많으니’ 등의 받침은 그의 「대한국어문법」(1906. 6) 3 후면 ‘만이’, 4 후면 ‘만코, 만으면’, 5 전면 ‘만어도, 만키만’ 등에 비하면 같은 시기의 著述이 아니라는 다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받침은 1910년 그의 「國語文法」에 나타나 있다.

- (9) 1908(隆熙 2). 11. 6. 「國語文典音學」出版
 (10) 1909(隆熙 3). 2. 15. 「국문초학」出版
 (11) 1909(隆熙 3). 3. 國文研究所「國文研究」筆寫
 (12) 1609(隆熙 3). 4? 「高等國語文典」油印
 (13) 1909(隆熙 3). 7? 「말」草稿
 1909(隆熙 3). 10. 「國語文法」脫稿
 (14) 1910(隆熙 4). 4. 15. 「國語文法」出版(住所 養生坊)
 △(15) 1910(隆熙 4). 6. 10. “한나라말” 「普中親睦會報」에 發表
 (16) 1911(明治 44). 12. 29. 「朝鮮語文法」初版(住所 養生坊)
 △(17) 1912(明治 45). ? 「소리갈」著述油印
 1912(大正 1). 11. “訓蒙字會再刊例” 脫稿(19)에 收錄
 △ 1912(大正 1). 12? 「말의 소리」本文脫稿
 (18) 1913(大正 2). 9. 27. 「朝鮮語文法」再版(住所 仁達坊)
 (19) 1913(大正 2). 11. 25. 「訓蒙字會」考校版 刊行
 1913(大正 2). 12? 「말의 소리」附錄脫稿
 (20) 1914(大正 3). 4. 13. 「말의 소리」自筆 石版出版(住所 仁達坊)

이 表에서 △표를 지른 항목을 보자. 그 著述年代는 1906년이 아니고, “한나라말” 이후 「말의 소리」 이전이다. 「말의 소리」本文脫稿 이전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1912년 한겨울(12월) 이전이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그의 「朝鮮語文法」再版(1913. 9. 27) 11면 이하부터 ‘웃뜸소리’를 ‘홀소리’로, ‘붙음소리’를 ‘닷소리’로 바꾸었는데, 이런 用語가 그 「소리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도저히 이 이후로 치질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소리갈」 끝 ‘漢陽終南山下養生舍’의 木覓山下 ‘養生舍’를 그의 住所 ‘京城南部養生坊倉洞三十一統四戶’와 관련지으면, 1912년 10월까지도 養生坊에 살았고, 1913년 9월 「朝鮮語文法」再版에서 仁達坊으로 바뀌었다.⁹⁾

한편, 그 「소리갈」의 上限年代는 1910년 6월 “한나라말”의 內容에서 子母音의 분류 특히 ‘ㅇ△ㅎ’의 처리가 그 「朝鮮語文法」初版(1911. 12. 29)과

9) 그의 ‘大正元(1912)年十月三十日에 普成中學校에 보낸 것’이라고 적은 履歷書에는 ‘現住 京城府南部養生坊倉洞三十一統四戶’라 하였고, 1913년경에 쓴 다른 履歷書에는 ‘京城西部養生坊三十一統四戶’라 하여 南部와 西部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느 有志에게서 紳사받은 ‘京城西部仁達坊內需司二十三統二戶’로 이사한 것은 1913년 9월 27일 이전이었다.

같이 때문에,¹⁰⁾ 그 이후로 늦추어지게 된다. 이 1911년 12월 29일이란 시기는 그 參考書의 發見時期에서 귀결된 바와도 완전히 일치된다. 따라서, 이 「소리갈」은 그의 「朝鮮語文法」 初版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러면, 그 「소리갈」의 著述年代는 1911년 12월 29일 이후 1912년 12월 이전으로 훨씬 더 좁혀지게 되었다.

여기서 「소리갈」이 전반적으로 「말의 소리」에 더 가깝다는 內容上的 사실을 고려에 넣는다면, 1912년 이후에 저술되었을 가능성을 질게 한다. 그런데, 그 下限年代를 1912년 한겨울(12월)로 잡은 근거는 「말의 소리」 本文의 脫稿年代에 있다. 그러나, 위의 著述年表를 다시 훑어 보면, 추정된 이 脫稿年代는 (18) 1913년 9월 27일 「朝鮮語文法」 再版 뒤에 놓여야 순리일 것으로 생각된다.¹¹⁾ 따라서, 그 下限年代는 1912년에서 1913년으로 늦추어질 수 있다.

이렇다면, 이 「소리갈」은 1913년에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證言에 나타난 油印物에 대하여 되새겨 보자.

내 나이 열 여덟살 되든 해 가을이었다. …漢龍이라는 일가 아이가 서울 徵文義塾(徵文中·高等學校의 前身)에 留學하다가 겨울 放學이 되어 歸省한 것이었다. …서울서 공부하던 教科書와 其他 教材를 꾸러 가지고 온 것을 나는 모조리 通讀하기로 하였다. 하루는 油印物로 되어 무섭게 구겨진 國語文法의 教材를 發見하고, 이것을 읽어 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理解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물건을 「문」이라 하고, 空氣를 「도」라 하는 등 생소하고 서투른 말이 많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註解가 붙어 있어서 全然 理解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¹²⁾

이것은 바로 1913년 겨울 방학에 일어난 일로서 그 油印物 國語文法의 教材는 다름 아닌 이 「소리갈」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증언에는 이

10) 위 각주 7)과 Ⅱ. 맺음의 ‘周時經의 子音分類變遷表’ 참조.

11) 前半部를 아직 최종의 用語로 고치지 않은 「朝鮮語文法」 再版보다 전편을 다 최종의 用語로 고친 「말의 소리」 本文 脫稿가 후행한다고 해야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원래 「朝鮮語文法」은 판을 거듭할 때마다 부분적인 修正만을 더 하였던 만큼, 이와 별도로 앞서서 「말의 소리」 新稿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2) 李熙昇, “나의 國語學,” 『國語學』 3 (1975. 12), 1-6 참조. 그는 이를 계기로 國語研究에의 뜻을 굳혔고,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겨울에 다시 상경하였다고 술회하였다.

책이 1913년도 徽文義塾의 교재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¹³⁾ 이런 경위로 보면, 이 책은 1913년 新學期에 맞추어 나왔다고 해야 순리이겠으나, 그 전년에 나왔다고 해도 모순될 것은 없다.

요컨대, 이 「소리갈」은 1912년에 혹은 1913년에 저술되어 나온 책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은 일종의 年代僞作이라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Ⅲ. 맺 음

문제된 「소리갈」은 同時經의 自筆油印本으로서 1912년이나 1913년에 된 책이다. 그 上限은 1911년 12월 29일 그의 「朝鮮語文法」 初版이며, 下限은 1913년 9월 27일 그의 「朝鮮語文法」 再版이라고 믿어진다. 이 사실은 「소리갈」에 제시된 參考書의 發見時期, 혹은 「소리갈」의 內容과 이와 관계되는 그의 다른 著述과의 比較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僞作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결과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우선 그의 學說發展史가 뒤죽박죽이 되겠는데, 1906년 이후 1912년 이전의 著述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字母에 대한 認識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가령, 子音만 보더라도

同時經의 子音分類變遷表

- (1) ㄱ ㆁ ㄷ ㄴ ㅂ ㅅ ㅈ ㅊ ㅌ ㅍ ㅍ ㅍ ㄹ (單音) ㅋ ㆁ ㆁ ㆁ ㆁ (複音) 「대한국어문법」(1906. 6)
- (2) ㄱ ㆁ ㄷ ㄴ ㅂ ㅅ ㅈ ㅊ ㅌ ㅍ ㅍ ㅍ ㄹ (單音) ㅋ ㆁ ㆁ ㆁ ㆁ (複音) 「國文研究案」(1907. 11), 「國語文典音學」(1908. 11), 「高等國語文典」(1909)
- (3) ㄱ ㆁ ㄷ ㄴ ㅂ ㅅ ㅈ ㅊ ㅌ ㅍ ㅍ ㅍ ㄹ (單音) ㅋ ㆁ ㆁ ㆁ ㆁ (複音) ㅎ ㆁ ㆁ (古字) 「國文研究」(1909. 3)
- (4) ㄱ ㆁ ㄷ ㄴ ㅂ ㅅ ㅈ ㅊ ㅌ ㅍ ㅍ ㅍ ㄹ (單音) ㅋ ㆁ ㆁ ㆁ ㆁ (複音) ㅎ ㆁ ㆁ (古字) 「國語文法」(1910. 4), 「한나라말」(1909. 6)
- (5) ㄱ ㆁ ㄷ ㄴ ㅂ ㅅ ㅈ ㅊ ㅌ ㅍ ㅍ ㅍ ㄹ (單音) ㅋ ㆁ ㆁ ㆁ ㆁ (複音) ㅇ (無音) ㆁ ㆁ (古字) 「朝鮮語文法」(1911. 12), (1913. 9)

13) 周時經의 履歷書 職業欄에 '明治四十二(1909)年四月十日로 今日까지 觀覲 私立徽文義塾 講師의 任을 視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6) ㄱㄴㄷㄹㅁㅂㅅㅇ 소ᄉᆞᆫ(單音) ㅈㅋㅌㅍㅊ(複音) ㅇ(無音) △(除外) 「소리갈」(1912-13)
- (7) ㄱㄴㄷㄹㅁㅂㅅㅇ 소ᄉᆞᆫ(單音) ㅋㅌㅍㅊ(複音) ㅇ(無音) △(除外) 「말의 소리」(1914. 4)

등과 같이 변하였는데, 그 (6)이 (2)로 소급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한, 그는 1910년부터 아래아를 쓰지 않았고, 그의 履歷書에도 이 구분이 분명한데, 아래아를 쓰지 않은 「소리갈」이 도저히 1906년으로 소급될 수는 없는 일이다¹⁴⁾.

이와 같이, 이 「소리갈」이 1912년 혹은 1913년의 著述로 교정되었다고 해서 그 책의 價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周時經의 音學 중에서 가장 체계화된 著述로서 그의 완전한 우리말化의 첫 述著이며, 「말의 소리」形成過程을 보여 주는 소중한 文獻이다. 곧, “한나라말”과 「소리갈」과 「말의 소리」의 차례로 이어짐으로써 도사였던 의혹이 풀리고, 오히려 이 「소리갈」이 더 중요시되게 되었다.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著者가 自筆로 쓰면서 그 年代를 왜 6년이나 추켜올렸을까 하는 의문이다. 그런데, 韓日合邦 이후 그가 직접 기록한 紀年을 보면, 履歷書를 제외하고는 한글字母나 六甲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거기에 日本年號를 피함으로써 亡國의 슬픔을 달래려는 뜻이 엿보인다, 愛族心 때문에 예수에서 大敎敎로 改宗한 그가 西紀를 사용할 리도 만무하였다.

光武十年八月三十一日

漢陽終南山下養生舍

周時經著

이 記錄에서 光武十年을 大正二年이라 표기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것은

14) 이 줄고를 탈고할 무렵에 「소리갈」의 解題와 影印에 접하게 되었다. 책 크기가 24.8×19.3cm이라는 것과 그 油印年代가 「朝鮮語文法」(1911.12. 初版)과 「朝鮮語文法」(1913.9. 再版) 사이라고 추정한 점에 시선이 끌린다. 그러나, 影印에 표지와 附錄이 누락된 것은 못내 유감이다.

崔明玉, “「소리갈」解題”, 「國語國文學研究」(嶺南大學校) 13 (1978. 6. 31), 133-4 참조.

이해가 간다. 그러면, 다음 月日은 사실이라 쳐도, 하필이면 이 年代를 덕
 하였던가? 굳이 따지자면 그 해에 「대한국어문법」을 낸 터에, 어찌면 乙巳
 保護條約 이전의 時期를 잡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생각함
 에 있어서 택한 그 僞作年代가 무엇인지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參考文獻

金敏洙. 「周時經 研究」 1977. 8. 서울, 塔出版社.

金敏洙, 河東鎬, 高永根 編. 「歷代韓國文法大系」 1977-1. 서울 塔
 出版社.

李基文 編. 「周時經全集」 上, 下 1976. 12. 서울, 亞細亞文化社.

周時經. 「소리갈」 (影印), 嶺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國語國文學
 研究」 18 (1978. 6. 31), 135-44면.

崔明玉. 「「소리갈」 解題」, 「國語國文學研究」 13 (1978. 6. 31), 13
 3-4면.